운전중 DMB 시청 단속 한계…계도에 그칠 우려

내달부터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부과

신호대기·정차 중일때는 처벌대상 제외

21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앞 사거리는 퇴근길 차량으로 모든 방향이 꽉 막혀 있었다. 영하의 날씨에 오전부터 눈이 내리면서 미끄러운 도로를 느릿느릿 움직이는 상당수 차량 차창 너머로 내비게이션 등 영상장치에서 뿜어져나온 빛이 어른거렸다. 내비게이션 대신,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았다.

다음달부터 운전하면서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 중 DMB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1일,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돼 적발 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DMB에 TV 드라마를 켜놓고 운전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도로교통법(49조 1항)에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벌금 7만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벌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된 법 규정이 구체화되면서 DMB를 켜놓기만 했을 뿐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일 때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이같은 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면서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이 움직이는 차 안에서 DMB를 보는 것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설 전통시장 도로 주·정차 허용 최대 2시간까지

설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전남 순천 웃시장 등 21곳, 서울 통인시장 등 122곳, 경기 고양 능곡시장 등 73곳,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 40곳, 부산 부평 깡통시장 등 23곳, 전북 전주 모래내시장 등 21곳, 경남 진주 서부시장 등 19곳 등이다.

상시적으로 평일에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107곳에서 124곳으로 늘었으며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304곳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차 허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5.6%, 매출액은 15.7% 증가했다.

안행부는 앞서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4일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열어 15~29일을 설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과, 배, 쇠고기 등 성수품과 생필품 28개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어르신 1000명분 떡국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이 2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주변 어르신과 주민 등 1000여명에게 대접할 떡국을 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설연휴, 귀성 30일·귀경 31일 가장 혼잡 예상

서울→광주 6시간 50분 소요

이번 설에는 지난해보다 연휴가 하루 늘어나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승용차로 주요 도시를 이동할 때 20~30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귀성길은 설 하루 전인 30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31일 오후에 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닷새간 2769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554만명으로 설 당일에 최대 662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9000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교통수요조사에 따르면 귀성 교통량은 30일에 절반 넘는 57.3%가 집중되고 귀경 때는 31일(39.5%)과 2월 1일(41.4%)에 교통량이 많다. 시간대별로 보면 귀성 때는 설 전날인 30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40.6%로 가장 많았다. 귀경 때는 설날인 31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32.9%였으며 다음날인 2월 1일 오후 출발도 27.4%로 나타났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귀성 때는 최대 소요시간이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8시간 10분, 서울~강릉 5시간, 서울~대구 7시간 10분, 서울~울산 8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길에는 대전~서울 3시간 40분, 부산~서울 7시간 20분, 광주~서울 5시간 30분, 목포~서서울 6시간 50분, 강릉~서울 4시간, 대구~서울 6시간 30분, 울산~서울 7시간 30분이 걸린다.

서울~부산은 귀성길과 귀경길이 지난해보다 각각 30~35분 더 걸리고 서울~광주는 20~30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서울~목포 구간은 제2서해안선 개통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집중돼 최대 소요시간이 50분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3.3%로 가장 많고 버스 12.0%, 철도 3.9%, 항공기 0.5%, 여객선 0.3%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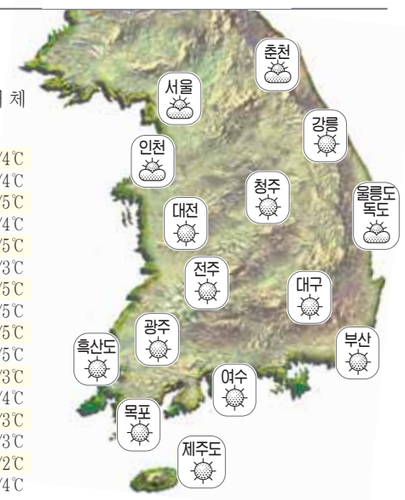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8분 해짐 17시 50분 | 달뜸 23시 32분 달짐 10시 34분

강추위

대체로 맑겠으며 바람 불어 체감온도 낮겠다.

광 주	맑음	-7/4℃
목 포	맑음	-4/4℃
여 수	맑음	-4/5℃
나 주	맑음	-10/4℃
완 도	맑음	-3/5℃
구 례	맑음	-10/3℃
강 진	맑음	-6/5℃
해 남	맑음	-5/5℃
장 흥	맑음	-7/5℃
순 천	맑음	-5/5℃
영 광	맑음	-7/3℃
진 도	맑음	-3/4℃
전 주	맑음	-9/3℃
군 산	맑음	-7/3℃
남 원	맑음	-12/2℃
흑산도	맑음	0/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2.0~3.0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매우높음	낮음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5:34 17:53	10:48 23:14
여수	00:16 12:36	06:17 18: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날 씨						
최저/최고	-4/7	-2/9	5/9	3/6	-3/7	-2/6

광주 남구 민원불편 해소 '민원암행어사' 모집

광주 남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 암행어사'로 활동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인사들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남구는 2011년 제정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암행 고객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인사를 2년 임기의 민원 암행어사로 위촉해왔다. 자격은 현재 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 암행어사는 분기별로 1회씩 민원처리 점검, 우수 공무원 추천, 주민참여 민원혁신위원회 참여 등 활동을 펼친다. 다음달 7일까지 총 1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둘 이상 출산 여성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어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 7월 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명만 출산하는 근로자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